

# 태신목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태 신 목 장  
전 무 김 영 배

금년은 몇십년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키우고 있던 많은 소들을 도태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UR타결로 말미암아 언제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유의 수급 조절 역시 계획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지않고 모자라면 수입하고 남으면 깎아먹는 구태의연한 방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전업 낙농인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만 현실에서 도태되지 않고 세계속의 한 낙농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가를 생각치 않을 수 없는 시점에서 저의 목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목장의 현황

저의 목장은 전신인 평택목장에서 68년부터 경영을 하다 1987년 7월에 현재의 목장으로 옮겨서 설립, 현재까지 27년 동안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상시 종사인원 20명과 정년퇴직자 2명이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장규모는 40만평으로 이중 30만평은 사료포로 쓰이고 나머지는 축사, 도로,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사는 착유우사, 분만우사, 육성우사, 비육우사, 착유실, 관리사로 나뉘어져 있다.

젖소 사육두수는 ♀ 600두, ♂ 150두로 이중 착유두수 230두, 송아지 100여두 나머지는 육성우, 건유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숫놈은 자체비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 230두 착유에서 1일 약 5,500kg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질은 체세포 24-27만개, 일반세균 8,000마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10M/T의 원유생산을 2,000년까지의 목표로 두당 산유량 24ℓ를 30ℓ 생산을 목표로 사육두수의 증가와 젖소의 개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2. 사양관리 및 개량방향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젖소 암놈을 매입하여 조사료는 조사료대로 농후사료는 농후사료대로 별도의 급여를 하는 일반적인 관리방법에 의해 사양관리를 실시하였고, 또한 그 당시(1980년대 초)에는 젖소의 두당 산유량이 13~15kg/1일 정도로 매우 능력이 저조했지만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한 노동력에 의해 별무리없이 목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젖소의 개량이라는 의미가 마구잡이 자연종부에서 인공수정을 시켜게 되면 자연적으로 개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1980년대 초부터 수입정액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정액 사용방법을 현재에 사용한다면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는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근친이나 외모는 전혀 고려치 않고 유량의 증가만을 위해 정액을 선별해서 1980년대 후반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젖소의 능력이 20kg/1일까지는 상승하였으나, 과거의 사양관리 방법으로는 더 이상 능력에 맞는 사양관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1988년도 후반기부터 TMR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과거에는 저능력우라서 그런지 별다른 질병이 발생치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질병 및 번식질환의 다발로 인하여 도태되는 젖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료급여 방식을 TMR방식으로 변경시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① 소가 좋아하는 사료만 골라서 먹게됨으로써 필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 TMR로 급여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② 여러종류의 단미사료, 강피류 및 부산물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원가를 절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인력을 TMR에 고정 배치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또한 분업화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써 좀 더 나은 사양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TMR사료를 급여하다 보니 대부분이 생각한대로 이뤄졌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① 군관리를 하다보니 능력이 있는 소의 경우 능력에 맞는 사료를 급여하기가 곤란하였고 반면에 저능력우의 경우에는 영양소의 과잉공급으로 피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단미사료의 구입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매가 어렵워 자주 급여체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젖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선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다보니 번식쪽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량의 방향도 장기간 콘크리트바닥에서

생활하는 젖소의 상황을 별도 고려치 않고 유량 위주의 정액을 선별하여 사용하다보니 체형의 문제가 발생하여 젖소의 경제수명도 상당히 단축되어 1990년대 초부터 체형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각각의 개체마다 선형심사를 실시하여 정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양관리 역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TMR방식에 의해 기초사료는 급여하고 각개체마다 적당량의 농후사료를 급여키 위해 유량에 입각한 자동사료급여장치를 설치 운영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이 체제에 대한 논의는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앞으로의 목표

이제 대신목장이 나가야할 방향은 2000년대까지 10M/T의 원유생산을 앞당기고 현재의 두당산유량을 24ℓ에서 30ℓ/1일까지 끌어 올려야 되겠으며, 개체관리 및 축사시설의 자동화로 지금의 수준에서 좀더 사람과 젖소에게 편리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되겠습니다. 좀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의 착유방식에서 좀더 사람에게 편리성이 부여된 로봇 착유기에 지금의 전산시설에 좀더 발전된 전산시설을 갖추어서 사무실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젖소의 현 상황 및 상태를 파악가능한 시설로의 발전이 되어 될 것입니다. 또한 개량을 단순한 유량의 증대에서 좀더 구체적인 우유의 유성분쪽으로 발전을 하여서 대신목장에 가장 적합한 소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품질이 고급화된 우유를 생산하여 낙협 또는 뜻있는 몇몇 농가가 원유를 가공처리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시유를 직접 판매하는 길만이 수입 유제품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신목장 주소 :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산47-7

전화 : 0457-356-3154